

광주 여고생 ‘셔틀콕 천재’의 반란

세계배드민턴 투어...50위 안세영, 1위 대만 타이즈잉 2-1 제압
한국 조 1위로 세계혼합단체선수권 8강 진출...5번째 우승 도전

‘셔틀콕 천재’ 안세영(17·광주체고·세계 랭킹 50위)이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타이즈잉(대만)을 꺾었다.
안세영은 이달 초 뉴질랜드 오픈에서 세계랭킹 11위 장베이원(미국) 등을 꺾고 세계배드민턴연맹(BWF) 투어 대회 첫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미 파란을 예고했다. 국가 대표 막내인 안세영은 22일 중국 난닝에서 열린 2019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 조별예선 C조 2차전 여자단식 경기에서 타이즈잉을 2-1(14-21 21-18 21-16)로 꺾었다.
1게임에서 타이즈잉에게 내내 밀리는 경기를 했던 안세영은 2게임에서 2-0, 7-2로 점수를 벌린 뒤 한

번도 리드를 내주지 않고 승리, 분위기를 뒤집었다.
안세영은 3게임에서는 2-4에서 4-4로 따라잡은 뒤 18-7로 대역전에 성공하며 승리를 따냈다.
안세영은 최근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중국을 비롯해 같은 조에 편성된 대만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지만 최근 뉴질랜드 오픈 우승 이후 컨디션이 매우 좋다”면서 “이번 대회는 혼합단체전(5전 3승제)으로 경기순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출전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계혼합단체선수권대회는 남자단식, 여자단식,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5경기를 치러 승수가 많은 국가가 승리하는 방식으로 열린다.

안세영의 활약으로 한국은 대만을 3-2로 제압, C조 1위(2승)로 8강에 진출했다.
한국은 대만 상대 첫 경기에서 남자복식 최솔규(요넥스)-서승재(원광대)가 패했지만, 이어진 여자단식에서 안세영의 승리로 균형을 맞췄다.
대만은 조 2위(1승 1패)로 8강에 올랐고, 조별예선에서 2패를 떠안은 홍콩은 탈락했다.
8강 대진은 추첨을 통해 정한다.
한국은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하며 ‘수디르만 컵’을 들어 올렸다. 한국이 2년마다 열리는 세계혼합단체선수권에서 우승한 것은 14년 만이었다.
비록 성지현, 손완호(인천국제공항), 이소희(인천국제공항)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대거 빠졌지만, 한국은 안세영 등 ‘젊은 피’를 앞세워 올해 대회에서 통산 5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김현영 기자 young@연합뉴스



“얼마디 각오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KIA 새 주장 안치홍

분위기 반전 위한 세대교체
신·구 선수 조화·성적 반등 중책
“솔선수범으로 팀 분위기 쇄신
젊은 팀으로 거듭나겠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KIA 타이거즈의 안치홍이 ‘솔선수범’을 통한 분위기 쇄신을 이야기했다.
KIA 안치홍은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가 열린 22일 팀의 대표 선수로 선수단 앞에 섰다. 이날 부상으로 빠졌던 김주찬이 주장 완장을 내려놓으면서 안치홍이 ‘새로운 캡틴’으로 KIA의 올 시즌을 이끌어갈게 된다.
KIA는 베테랑들의 부진 속에 최하위까지 추락했고, 2017년 우승을 이끌었던 김기태 감독까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면서 어수선한 2019시즌을 보내고 있다.
KIA는 분위기 반전을 위해 올 시즌 그라운드 안팎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최고참’ 김주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연스러운 세대교체의 바람을 만들기 위해 안치홍에게 선수단을 잇는 역할을 맡겼다.



안치홍은 “팀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장을) 맡게 됐다. 어린 선수들이 많아진 만큼 제가 주장을 함으로써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부터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이끌 수 있도록 할 생각이다”며 “저보다 선배들도 있고 후배들도 많아졌는데 중간에 있는 만큼 먼저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잘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주장’을 이야기했다.
안치홍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단연코 팀을 잘 이끌겠다 이런 아니지만 저도 처음 하고 배우는 입장으로서 하나하나 팀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마 시절부터 처음으로 주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지만, 쉽지 않은 장애물들이 안치홍을 기다리고 있다.
주장으로 최하위 싸움을 하는 팀의 반응을 이끌어야 하고 FA를 앞둔 만큼 ‘해결사’로서의 부활도 노려야 한다.
안치홍은 “좋은 경기력을 보이면서 팀을 이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 그러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감독님 바뀌고 나서 감독님께서 중요시 생각하시는 게 분위기나 덕아웃에서 하는

행동이나 그런 걸 좋은 쪽으로 바꿀 수 있도록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방향을 이야기했다.
역시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은 분위기 쇄신이다. 승패를 떠나 분위기를 띄우고 KIA의 젊음을 힘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안치홍은 “선배들도 도와준다고 했고 오랫동안 같이 해왔던 선수들이라서 타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걱정이 없을 것 같다”며 “제일 첫 번째가 분위기 쇄신을 하는 중이니까 그게 빨리 잡히면 좋겠다. 승패를 떠나서 활기를 떨 수 있는 분위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합할 때는 두려움도 없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거기서 배워야지 선수들이 느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측하지 못할만한 팀이 되는 게 제일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보다 어린 선수들을 그렇게 이끌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김정환·윤평국·이도범

K리그 2 12R ‘베스트 11’



광주FC의 12경기 연속 무패행진을 이끈 김정환, 윤평국, 이도범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2일 K리그2 12라운드 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20일 서울이랜드와의 홈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은 김정환이 베스트 공격수에 선정됐고, 환상적인 패스로 2도움을 기록한 이도범은 베스트 미드필더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선방쇼를 펼치며 3-1 승리를 지킨 골키퍼 윤평국도 베스트 11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광주는 이날 김정환, 윌리안의 시즌 첫 골과 함께 여름의 프리킥을 더해 3골을 몰아넣으며, 팀 역대 최다 무패 기록을 12경기로 늘렸다. 또 3-1 승리를 거둔 부상의 추격을 따돌리고 선두 자리에 지켰다.
광주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원정길에 올라 아산 무궁화를 상대로 13경기 연속 무패 기록에 도전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U-20 월드컵 내일 개막

한국 25일 포르투갈과 예선 1차전

‘스타 등용문’으로 불리는 2019 FIFA U-20 월드컵이 한국시간으로 24일 새벽 1시 폴란드 루블린과 그디니아에서 A조 폴란드-세네갈, B조 멕시코-이탈리아의 경기로 화려하게 개막한다.
통산 22회째를 맞는 올해 U-20 월드컵은 한국시간으로 24일 개막해 내달 16일 폴란드 우치에서 열리는 결승전까지 24일 동안 이어진다.
공교롭게도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이번 U-20 월드컵에서 최다우승에 빛나는 아르헨티나와 두 차례 우승을 차지한 포르투갈을 비롯해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조별리그 F조에서 경쟁하게 됐다.
우승 후보가 두 팀이나 속해 있어 F조는 이번 대회 최고 ‘죽음의 조’로 손꼽힌다.
‘정정용호’는 한국시간 25일 밤 10시 30분 비엘스코-비아와 스타디움에서 포르투갈과 F조 1차전을 펼치고, 29일 새벽 3시 30분 티히 스타디움에서 남아공과 2차전을 치른 뒤 6월 1일 새벽 3시 30분 또다시 티히 스타디움에서 아르헨티나와 3차전을 펼친다.
정정용 U-20 대표팀 감독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1983년 멕시코 대회 때 달성한 한국의 역대 최고 성적인 4강 신화 재현을 목표로 세웠다. 36년 만에 영광 재현을 위한 ‘이게인 1983’이 정정용호의 지상과제다.
정 감독은 이를 위해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발렌시아)을 필두로 프로축구 K리그 무대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는 공격수 조영욱(수원), 전 세진(수원)을 최전방 공격진으로 뽑았다.
◇ 조별리그 F조 일정(한국시간)
▲ 5월 25일(토) 한국-포르투갈(22시 30분·비엘스코-비아와 스타디움) ▲ 5월 29일(수) 한국-남아프리카공화국(03시 30분·티히 스타디움) ▲ 6월 1일(토) 한국-아르헨티나(03시 30분·티히 스타디움) /연합뉴스

덕아웃 T 특특

5승 하준영 “팀 내 다승 1위 선수입니다”

▲팀 내 다승 1위 선수입니다 = 덕아웃에서 주목을 받은 ‘팀 내 다승 1위’ 하준영이다.
하준영은 지난 21일 롯데와의 홈경기에서 7-5로 앞선 5회 무사 1루에서 등판했다. 선발 윌런드에 이어 일찍 마운드에 오른 하준영은 2.1이닝 1피안타 2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마운드 싸움을 이끌어냈고, 경기가 그대로 10-6 KIA의 리드로 끝이 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경기 끝날 때쯤에 내가 승리투수가 되는 걸 알았다”며 웃은 하준영은 이 승리와 함께 시즌 5승을 기록했다. 하준영은 22일 훈련 시간에 ‘팀 내 다승 1위’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윌런드가 하준영의 뒤를 이어 3승, 양현종과 터너가 각각 2승씩을 기록하고 있다. 하준영은 “이 승리는 내가 기록하면 안 되는 것이다. 홀드를 해야 한다”며 속스럽게 웃었다.

▲자유로워졌어요 = KIA의 ‘막내’ 장지수가 자유를 얻었다. 고졸 투수 장지수는 2000년에 태어난 KIA의 막내다. 장지수는 지난 21일 경기 전 3루 측 응원 단상에 올랐다. KIA는 성년의 날이었던 이날 경기장을 찾은 ‘20세’의 관중 20명

에게 꽃다발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장지수는 단상에 올라 팬들에게 꽃다발을 선물하면서 성년의 날을 함께했다. 장지수는 성년이 된 소감을 묻자 “자유로워졌다”고 말해서 사람들을 웃게 했다.

▲오늘 경기 끝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 누구보다 비장한 각오로 22일 경기를 준비한 선수가 있었다. 이날 선발로 나온 홍건희와 배터리로 호흡을 맞춘 신범수. 신범수는 지난 10일 SK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처음 선발 출전했다. 이날 선발

투수가 홍건희. 야심 차게 선발 경기에 나섰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경험 부족의 신범수는 의욕만 앞서 실수 연발을 하면서 진판을 흘렸다. 이 경기가 끝난 뒤 “건의 형에게 너무 미안했다”며 고개를 숙였던 신범수는 주전포수 한승택이 22일 선발 라인업에서 빠지면서 안방을 지켰다. 박흥식 감독대행은 “휴식 차원에서 한승택을 쉬게 해줬다”며 신범수의 선발 기용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